

ISSN 1738-0189

北韓法研究

- 姜求眞 教授 20周忌 追慕 論文集 -

第 7 號

2004

北韓法研究會

故 姜求眞교수 20周忌를 맞이하여

宋相現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법조계의 천재 강구진교수가 불의의 교통사고로 요절하신 것이 벌써 20년이 됩니다. 1984년 학생들의 반정부데모가 한창인 시절 서울법대 학생부학장으로서 밤낮 애쓰시던 그의 마지막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 운명의 날 서울법대교수는 모두 모교에서 민사소송법을 가르치시다가 대법관으로 영전하셨던 방순원 선생님의 고희 축하연에 참석하기 위하여 행사장으로 먼저 가시고 저는 강교수와 동행하기 위하여 연구실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의 항의집회가 해산할 기미를 보이지 아니하자 강교수는 직책상 학교에 남아있고 저만 늦게 훌로 출발했습니다. 행사에 가서 잠간 예의를 표한 후 귀가하자마자 저는 학교에서 늦게 출발한 강교수가 남부순환도로 까치고개 부근에서 교통사고로 순직하신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우리나라 법학계와 법조계에 거대한 손실을 알리는 비보였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군사정권하에서 정권유지에 예민한 학문분야는 특히 감시와 탄압을 심하게 받던 시절이었습니다. 법학분야도 예외가 아니었고 특히 형법분야는 마음대로 연구하고 가르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결과 형사법을 전공하고자 하는 젊은이들도 급속하게 줄어들고 형사법분야의 학문발전 자체가 기본적으로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척박하기만한 학문풍토속에서도 우리에게 혜성과 같이 나타난 신진 형법학자가 바로 강구진이었습니다. 서울법대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내어 유기천, 김기두, 황산덕 교수님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고, 1960년대에 드물게 풀부라이트 장학금을 받아 하버드법대에 유학하여 형사법을 전공하였습니다. 특히 그의 박사논문은 북한법에 관한 연구를 다루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북한법연구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의 정치정세에 비추어 용감한 선택이었고 이 분야에 새로운 장을 개척한 의미가 있습니다. 저도 하버드법대

에서 강교수를 지도한 Jerome A. Cohen교수가 강구진은 자기가 지도한 어느 학생보다도 창의적이고 근면하고 천재성을 가진 학자라고 극찬하는 것을 자주 들은 바 있습니다. 그가 귀국한 후 잠시 법원에 몸을 담았으나 학문에의 정열을 못잊어 모교로 돌아왔을 때 서울법대는 형사법을 짊어지고 나갈 학문의 대들보를 확보한 셈이었고 저도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동료를 맞이하여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개인박명(佳人薄命)이라는 옛말이 하필 우리가 가장 촉망하고 사랑하던 강구진 교수에게 해당되게 되었는지 야속한 생각과 함께 다른 한편으로 그를 기리는 마음이 해가 갈수록 더욱 진해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40을 조금 넘게 산 그의 생애는 아직도 깊지게 후학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가 서울법대를 무대로 이룩한 훌륭한 형사법분야의 업적이 동교 후배교수들에 의하여 계승되고 있고, 특히 그가 처음 시작한 북한법연구는 남북관계가 코페루니쿠스적 전환을 이룩한 지금 국민대 장명봉교수를 중심으로 하는 북한법연구회로 활발히 맥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도 북한법연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북한법연구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고 장명봉교수의 책임하에 그 연구성과는 괄목할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열리는 북한법 학술회의는 강구진교수를 추모하면서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른 남북경협관련법제를 논하는 뜻깊은 학술행사입니다. 부디 알찬 수학을 바라고 끝으로 고인의 명복을 비는 바랍니다.